

유발 하라리에게 답하다 - 유발 하라리의 인류사 연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Answering Yuval Harari: A Christian Response to
Yuval Harari's Writings on the History of Homo Sapiens**

김성원 (Sung-Won Kim)**

ABSTRACT

Yuval Harari has drawn worldwide attention for his three-volume work on the history and the future of Homo Sapiens. From a bird's eye perspective he clearly analyzes how Homo Sapiens has become the ruler of the earth. What he found is Homo Sapiens' amazing ability to cooperate together in a scale. Specifically that was Sapiens' ability to create great, fictitious stories such as monetary orders, imperial orders and even religions.

However, Harari's over-simplified understanding and critique of religions as fictions have raised legitimate concerns of many religious minds. Christianity is no exception, and he sharply criticizes Christianity's historical errors as well as explaining the Christian doctrines and the Bible as fictional systems to justify social structuring of Homo Sapiens.

This paper is a response of a Christian theologian to Harari. This paper initially summarizes Harari's main arguments and shows his academic contributions. This paper will also critically review the internal tensions and even discrepancies found in Harari's arguments. Then this paper more specifically discusses Harari's view of religion and Christianit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Christian vision to help Homo Sapiens overcome the coming challenges of the near future.

Key words : Yuval Harari, Christianity, Homo Sapiens, Religion, Homo Deus, Future

* 2021년 11월 11일 접수, 12월 6일 최종수정, 12월 1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신학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집필되었다. 이 논문은 저자가 같은 제목으로 2021년 제38회 기독교학문
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서울신학대학교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교수 (철학적 신학 전공),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sungwonkimis@gmail.com

I. 들어가는 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1976-)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현생 인류의 역사를 추적하는 3부작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들였다(하라리, 2015, 2017, 2018).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로 등극하게 된 성공의 비결로 유연한 언어능력, 특히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규모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들었다. 화폐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와 같이 현생인류가 고안한 거대한 이야기들은 호모 사피엔스들을 통일시켜 왔다는 것이다. 하라리는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인류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이야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장구한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단순명료한 분석을 제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현생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하라리의 글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볼 때 인류사 전체를 다루는 하라리의 주장들은 지나친 단순화의 아쉬움이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분석과 제안에서도 오류와 내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의 오류 가운데 중대한 하나가 기독교,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오해이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란 그가 키워드로 삼는 거대한 이야기, 즉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분석에서 기독교는 유럽의 역사를 할 때 지배한 거대한 허구 이야기로, 많은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한 지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은 하라리의 역사관에 대한 필자의 비평적 논의를 담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이 비평작업을 통해서 필자는 하라리의 학문적 공헌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하라리의 오해와 편견들을 지적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저자는 부족하나마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하라리의 학문적, 종교적 노력이 지닌 공헌과 한계를 드러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라리의 저작들에 대한 국내 학자의 선행적인 연구로는 씨튼연구원이 주관하여 2년동안 진행된 하라리 연구모임의 결과물로 2020년에 출판된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인가?』에 실린 논문들이 있다. 이 책은 불교, 유교, 기독교 학자들의 논문들을 담고 있는데, 기독교 신학자로는 감리교신학대 이정배 교수, 성공회대 박태식 교수, 인천가톨릭대 송용민교수, 최현민 씨튼연구원장이 있다. 씨튼연구원이 주관하는 연구모임은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 책도 이러한 틀 속에서 종교에 관한 하라리의 주장들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한다. 하라리의 종교비판에서 각 종교가 공감하거나 긍정적으로 수용할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논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라리의 주장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때로 이 논문들은 하라리의 입장을 넘어서거나 반박하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필자가 이 논문의 논의과정에서 소개될 것이다.

하라리의 저작들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학술적, 신학적 논의도 의외로 적은 편이다. 이언 큐란(Ian Curran)과 안톤 니커크(Anton A van Niekerk) 교수는 각각 하라리의 과학기술 이해가 드러내는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코넬 토이트(Cornel du Toit)는 하라리가 내다보는 데이터 종교의 도래 주장을 비판하며, 로렌 사이볼드(Loren Seibold)는 하라리의 종교관을 비평하는 글을 썼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자 고든 미코스키(Gordon Mikoski)도 하라리가 보여주는 종교적 선입견을 비평한다. 유대교 학자인 마크 라이브(Mark E. Leib)도 하라리의 반종교적 편견을 지적하면서 뿌리없는 인본주의의 비극적 결말을 지적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하라리의 관점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데 의미있는 자료가 된다. 이들 자료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논문의 논의과정에서 소개 될 것이다.

이처럼 하라리의 종교관이나 기독교관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논문이나 저서는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논문은 앞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좀 더 포괄적으로 하라리의 주장들에 대한 학문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라리의 논의를 신학적으로 비평하고, 미래에 대한 하라리의 제시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유발 하라리의 주요 주장들

하라리는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 역사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그는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호모 데우스』에서는 인공지능과 생물학기술의 약진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될 현생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며 인간 의식의 계발이라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부작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그는 현생인류가 오늘날 처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도전들에 대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하라리, 2015, 2017, 2018).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대규모 협업능력을 든다. 사피엔스들은 그들이 가진 유연한 언어능력,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허구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었다(하라리, 2015:41, 48, 196). 그리고 사피엔스는 문자의 발명과 교육을 통해서 이 허구를 전수함으로써 지구를 지배하는 지배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라리는 분석한다(하라리, 2015:196).

사피엔스들의 대규모 협업을 가능하게 만든 물적인 바탕으로 농업의 발전이 있었으며(하라리, 2015:124), 화폐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적 질서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피엔스들은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고 하라리는 설명한다(하라리, 2015:247이하). 그 외에도 숫자의 발명은 개인의 지식적 용량을 넘어서는 집단적인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하라리, 2015:193).

오늘날 현생인류를 결집시키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허구 이야기로 하라리는 인본주의를 꼽는다: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새 교리이다” (하라리, 2017:307). 3가지의 인본주의가 출현했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인본주의였다(하라리, 2017:342이하). 하라리는 그 세 가지의 허구 이야기 가운데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사회주의와 진화론의 거센 도전이 있었지만,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군사력으로 인본주의의 갈래 싸움에서 승리했다(하라리, 2017:369). 그 예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인도,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만, 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공화국,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칠레가 차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했다(하라리, 2017:368).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라리는 분석한다. 자유주의의 핵심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개인의 의식과 자유의 이념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발달과 판단에 대한 인간의 의존이 심화됨으로 상실된다. 만인의 평등 이념은 초인간의 등장으로 깨지게 될 것이다(하라리, 2017 9장 중대한 분리). 결과적으로 오늘날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의심받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 앞에서 호모 사피엔스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라리가 볼 때 현생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은 기술인본주의이다(하라리, 2017:482). 호모 사피엔스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초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인본주의는 결국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운그레이트하면서 인본주의의 탱줄을 끊을 것으로 하라리는 전망한다(하라리, 2017:502). 그 결과 현생인류는 더 이상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믿지 않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새롭게 만들어낼 강력하고 거대한 이야기를 하라리는 데이터교라고 부른다(하라리, 2017 11장 데이터교). 데이터교는 모든 것을 데이터처리시스템으로 본다. 이 속에서 인간이라는 종은 단일한 데이터 처리시스템이 되고 개인은 컴퓨터 칩이 된다(하라리, 2017:517). 만물인터넷이라는 데이터처리시스템이 완수되면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라리는 전망한다(하라리, 2017:521).

이처럼 기술문명으로 인한 종의 위기를 현생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 하라리는 인류가 믿어온 모든 종류의 거대한 이야기들과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허구라고 비판한다(하라리, 2018:467). 단 한 가지 하라리가 인공지능의 지능발전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계발하는 것이다. 그가 제안하는 의식의 계발이란 무엇인가? 그는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싯달타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의식이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행복추구를 단념하고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라리, 2018:459).

그는 이러한 의식의 계발방법으로 싯달타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위팻사나 명상을 제시한다. 싯달타는 행복을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감각의 왜와 불쾌로 파악했다. 하라리는 싯달타의 가르침을 따르는 명상을 통해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불행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행복이란 실상 신체적 호르몬의 작용이며 신체적 감각이기에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라리, 2017: 21장 명상 편).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하라리가 제안하는 것은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하라리, 2017:459-460).

2. 유발 하라리의 학문적 공헌점들

하라리의 학문적 작업이 보여주는 첫 번째 공헌점은 그의 현생인류에 대한 역사기술의 시도 자체라고 생각된다. 그의 3부작은 현생인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그가 이 작업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교차학문적이고 통시적인 방법이다. 그는 오늘날의 복잡다단하고 상호연결된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글로벌하고 복합적인 오늘날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특정한 학제적 연구를 넘어서는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것처럼, 현생인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하라리는 학문과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적 이해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위성사진을 보듯 인류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세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듯한 시간압축적이고 통시적인 인류사 기술을 시도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압축적인 접근방법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방대하고 대담한 작업에 도전한 하라리의 학자적 노력이 놀랍고, 그의 용기가 돋보인다.¹

1) 왕대일 교수도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에 대한 서평에서 하라리가 인류역사에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 생물, 문화, 역사, 예술, 종교”들을 “통째로” 다루며 사유의 경계를 깨부순 통섭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왕대일, 2018:235-236)

두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분석의 결론들이 여러 부분에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필자가 요약적으로 설명한 하라리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현생인류의 성공이유들, 현재 호모 사피엔스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으로 세 가지 인본주의를 제시한 것, 그 가운데 자유인본주의의 승리를 설명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제시하는 두 가지 미래전망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의 주된 주장들이 가진 이러한 설득력은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분석과 전망에 적지 않은 학문적 가치를 갖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로, 하라리는 현생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이야기들 혹은 이데올로기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학문적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역사를 지배하는 다양한 거대담론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것들의 허구성과 모순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하라리는 미국독립선언서의 주장이 지닌 허구성을 폭로하며(하라리, 2015:162 이하), 기독교,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상상의 질서’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지닌 허구성을 주장한다(하라리, 2015:169 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리는 인류를 통합하는 모든 종류의 질서들이 지닌 내적 모순을 고발한다. 그의 이러한 가치없는 비판정신은 그의 작업의 학문적 공신력을 높여준다고 생각된다. 하라리가 글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지 학자적 전문성을 넘어서 진실에 대한 구도적 열정이다. 그가 보여주는 사실에 대한 진지하고 구도적인 태도로 인해서 독자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의 주장들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네 번째로, 하라리의 글쓰기 능력은 그의 주장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의 책에 담긴 생생하고 창의적인 표현들은 그의 저작들을 읽는 독자에게 즐거움과 공감을 준다. “테슬라가 생산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두가지 모델이 될 것이다. 바로 테슬라 박애주의자와 테슬라 에고이스트이다”(하라리, 2018:107). “돌칼이 점차 핵미사일로 진화함에 따라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위험해 졌다... 동굴벽화가 점차 티브이 방송으로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을 속이기는 더 쉬워졌다”(하라리, 2018:481). 등의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명쾌하면서도 트렌디한 개념과 표현을 통해서 하라리는 자신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책이라는 미디어 뿐 아니라 학문적인 글은 더더욱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날에 학문의 대중적 전달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그 자신의 학문적 주장들에 파급력을 더한다고 생각된다.

3. 유발 하라리의 학문적 문제점들

그런데, 너무 거대한 작업이기 때문이었을까? 하라리의 작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과 약점들을 안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작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 필자는 다음 일곱 가지로 그의 학문적 약점들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하라리의 주장이 보여주는 내부 모순

필자가 하라리에게서 발견하는 가장 큰 학문적 약점은 그의 저작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적 모순들이다. 하라리는 서로 맞지 않는 주장들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라리의 첫 번째 내적 모순점은 그의 실재관에서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의 역사관의 키워드인 고통의 실제성과 고통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결론 간의 모순이다. 하라리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주장한다. 허구의 이야기가 지배하는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실제적인 것은 오직 고통이라고 그는 보았다(하라리, 2018:463-464). 다시 말해서 고통은 그의 역사관의 키워드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안의 제시부분에서 하라리는 고통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하라리, 2018:459, 473). 그의 이러한 종교적, 관념적 주장은 자신의 모든 분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내적 모순점은 그의 인식론에서 발견된다. 하라리의 인식론은 과학적 진리관과 주관적 관념론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으로 하라리는 철저히 자연과학의 논리를 따르고 있으며 자연과학의 사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특히 그는 자연주의 진화론의 주장들을 따라서 인류 역사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다. “40억년 가까운 세월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선택의 법칙에 따라 진화했다. 지적인 창조자에 의해 설계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그는 쓰고 있다(하라리, 2015:561). 또한 그는 자연과학 일반을 그의 학문적인 주장들의 근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도덕성이 사실은 진화과정에서 나왔으며 그 뿌리는 인류 출현 전 수백만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한다”며 과학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라리, 2018:280).²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라리는 과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는 인간에 있어서 영속적인 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반해서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아를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파악하며,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경제적 결정론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 불행히도 진화론은 내 진정한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 영혼의 존재는 진화론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진화는 변화를 뜻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그는 쓰고 있다(하라리, 2017:150-152). 과학조차도 인간의 정신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는 인간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명상의 방법을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명상이 과학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명상을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과학으로 인정하고자 시도한다(하라리, 2018:473).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가 그 전까지 받아들인 진화론적 과학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과학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상충되는 면이 있

1) 하라리가 주된 학문적 방법론과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진화론과 과학적 자연주의의 관점에 대해서도 학문적, 기독교적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논문의 직접적인 내용과 무관하기에 생략한다.

지 않나? 당신은 중국에 가서 내적 자아에 대한 주관적 관찰에 의지한다.” 이에 대해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내 입장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과학적 관찰은 물리학과 생물학, 역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연구하는 일에 관한 한, 우리는 자기 말고는 그 누구의 정신도 관찰할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타인의 뇌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뇌는 정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신을 연구할 때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하라리, 2017:490).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라리가 자연주의적 진화론의 관점을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그의 역사관에서도 우리는 내적 모순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진화론적 변증법적 역사관과 목적론적 역사관 사이의 모순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편으로 하라리는 철저하게 진화론적 역사관을 따른다. 그러나 하라리는 또한 “역사의 화살,” 즉 역사에 방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현생인류는 문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생물진화의 방향과는 다른 목적론적 역사관을 제시한다 (하라리, 2015: 9장)

하라리에게서 발견하는 네 번째 내적 모순점은 그의 윤리관에서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윤리관과 제국적 질서에 대한 긍정 사이의 모순이다. 그는 현생인류는 기원 전부터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으며 미래에는 전지구적 제국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제국은 필연적으로 그 신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고통을 주는 메카니즘이다. 더구나 글로벌 제국의 출현은 견제할 다른 제국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근대 서구의 제국주의로 인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의 사피엔스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그가 잊은 것일까? 아니면 제국을 수많은 사피엔스들의 생존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하라리는 최근에 코로나 19 사태에 관해 쓴 글에서 이러한 팬데믹 사태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시민감시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고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Harari, 2020). 제국의 출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 글을 쓴 것일까?

하라리의 주장들이 보여주는 내부적 불일치와 모순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의 학문 안에 있는 이러한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원인은 그의 2중적 관점이다. 한 편으로 그는 철저한 자연주의자로 진화론적 과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로 자신과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자연주의는 모든 것의 원인을 자연에서 찾는다. 따라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물질에서 기원한 진화론적 생명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진화론이 관심을 갖는 종의 운명의 논의를 펼치면서도 인간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인이 겪는 고통의 실재성과 중요성을 놓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의 학문적 주장들

은 상호간의 불일치와 모순을 보여준다. 둘째 원인은 하라리가 경험한, 명상을 통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그의 학문적 사고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0년에 위빳사나 명상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꾸준히 명상을 실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깨달음이 그가 쌓아온 학문적 방향을 전적으로 재해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일생동안 경험해온 고통의 현실성과 그의 의식이 발견한 고통의 비실재성은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다.

2) 하라리의 피상적인 종교이해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진리는 없다는 인식론적 가정과 선입견의 위에서 하라리는 종교의 진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신 그는 종교를 철저하게 사회학적이고 윤리적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는 모든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종교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정책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별로 없다.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듯 종교는 걸치장일 뿐이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종교를 기술과 경제의 강력한 힘을 가리는 상부구조 정도로 일축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이슬람교 힌두교 혹은 기독교가 근대경제구조 위에 놓인 화려한 장식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장식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도 많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이야말로 역사를 이끄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 불행히도 그런 점에서 전통종교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치유책이 아니라 일부이다. 종교는 여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다지고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의 정치적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를 추가하기보다 해결하는데 이르면 종교가 제공할 것은 많지 않다. 많은 전통적 종교들이 보편가치를 옹호하고 우주적 타당성을 주장해도 지금은 근대 민족주의의 시너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라리, 2018:205).

하라리는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해 왔으나, 전혀 진리가 아니며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교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기에 역사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힘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종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그는 종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은 종교에 대한 외부자적 시각이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교리가 주장하는 진리성을 거부하고 종교를 사회적 이야기 즉 이데올로기로 보는 시각이 하라리의 근본적 한계이다. 종교의 신도들 가운데 그 가르침에 따르기를 실패하거나, 배교하거나 종교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 종교의 진리성을 거부하는 필요충분한 근거

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마치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군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과학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박태식 성공회대 교수는 하라리가 동양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을 비판한다. 박신부는 이러한 경향을 “서구중심적인 사고”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정배, 박태식 외, 2020:288). 이 비판은 현생인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지나친 단순화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좀 더 겸손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박교수의 비판은 타당하다. 이정배 교수도 하라리의 이러한 피상적인 종교비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교수는 차츰 시대의 종교적 에토스는 아직 실현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종교학자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기독교 가진 보편적 개념은 민족주의를 넘어서며, 기독교신학은 이상화된 신을 역사에서 추방할 만큼의 자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이정배, 박태식 외, 2020:48-49).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존 종교를 무용지물로 여기고 민족의 부정성을 부각시키는 하라리의 생각만으로 인류가 직면한 큰 위기를 예방하기에 한없이 부족할 것이다. 허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 독자를 향한 그의 충고였고, 또 우리에게 당부했으나 그의 말 또한 허구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정배, 박태식 외, 2020:49).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자 고든 미코스키(Gordon Mikoski)도 하라리의 저서에 나타나는 종교의 역사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과 혼동과 함께 종교에 대한 일관된 부정적인 언급들은 인간 역사에 대한 연구의 첫 글자를 쓰기도 전에 하라리는 이미 어떤 유물론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결론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한다(Mikoski, 2017:394).

그런데 놀랍게도 하라리는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싯달타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것의 사실성을 인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이 법칙은 불교도에게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다. 현대 물리학에서 E=MC²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라리, 2015:322). 여기에서 그는 싯달타의 주장들을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하면 싯달타가 가르친 것은 다름 아닌 과학적 사실들이었다고 그는 보는 것이다. 또한 하라리는 싯달타의 가르침을 허구적 거대한 이야기인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본질적으로 구별한다. 따라서 그의 종교비판에서 싯달타는 예외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하라리의 주장은 이중잣대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하라리의 주장을 따른다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추종자들이 만든 교리적인 체계나 윤리적인 오류와는 구별해서 이해해야 할텐데 하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한 편, 코넬 토이트(Cornel du Toit)는 하라리가 주장하는 데이터 종교 주장을 비판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이아(Gaia)라든지 범심론(Panpsychism)등 영적인 유물론의 주장들을 만들어

내어 왔으며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며 변화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종교는 이러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기에는 너무나 독특한 것임을 지적한다. 신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의 관계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이트는 회의적이다. 토이트에 의하면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연약성, 정서, 욕망, 의존성, 죄, 희망, 유한성”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위대성”은 “초월성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간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존재를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특징 지으며 인간을 특별한 역동성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Cornel, 2019:1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인간의 종교를 대체하며 종교는 그 기능이 소멸될 것이라는 하라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하라리의 종교이해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과 별개로, 로렌 사이볼드(Loren Seibold)는 하라리가 종교일반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심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하라리는 사피엔스에게 있어서 생물학적인 것 만큼이나 필연적인 것으로 믿음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Seibold, 2016:39). 거대한 이야기를 믿는 믿음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지속적인 것이었으며, 이것이 현생인류를 번성하게 해주었다는 하라리의 분석은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긍정이라는 사이볼드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라리의 의도와 달리 이것은 종교적 믿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다른 방식의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하라리의 피상적인 기독교 이해

기독교적 시각에서 하라리의 저작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종종 기독교적 개념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인류의 인지혁명을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로 표현하며, 수렵채취인들을 “아담과 이브”라고 부른다. 또한 사피엔스들의 해외 이주를 “대홍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쩌면 하라리는 기독교의 핵심개념들을 진화인류학으로 설명하려고 은연 중에 시도하는 것 같다.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도 하라리는 종교는 허구라는 그의 전제를 반복한다. “기독교 이야기”는 기초가 없는 허구라고 그는 비판한다. 창조자의 아들이 2천년 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필리오케(Filioque)” 단어 하나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고 기독교의 교리적 형성과정을 하라리는 비판하기도 한다 (하라리, 2018:425). 하라리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태도는 회의적인 뿐만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하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희생 영원 순수 구원 이중 어떤 단어라도 듣게 되면 경보음을 울려야 한다... 답은 결코 이야기가 아니다” (하라리, 2018:466).

하라리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으로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종교적 경전 일반에 대

한 그의 비판을 적용한다.

우주의 신비와 세상의 입법자간의 빠진 연결고리는 흔히 어떤 신성한 책이 제공한다. 이 책은 사소하기 이를 데 없는 규제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주의 신비 탓으로 돌린다. 신도들의 설명대로라면 그 책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신이 지었다... 우리가 아는 최선의 과학 지식에 따르면 이 모든 성스러운 텍스트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호모 사피엔스가 쓴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선조가 사회규범과 정치구조를 정당화하려고 발명한 이야기일 뿐이다”(하라리, 2018:297-298).

하라리가 볼 때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갖는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이야기 능력이 뛰어난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허구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최현민 씨튼연구원장은 성경에 관한 하라리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성경은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그 기록형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최현민 원장은 기독교 전통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온 책을 하라리가 간단히 인간의 상상력으로 기록된 허구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녀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것을 성경의 허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혼동이라고 지적한다. (이정배, 박태식 외, 2020:273-275).

우리가 하라리의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보더라도 기독교와 성경은 오히려 하라리가 요구하는 사실성과 진실성을 드러낸다. 기독교는 하라리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다. “하라리 당신이 유일하게 진실과 사실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고통이 아닌가? 당신은 인간이 겪는 고통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이야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과연 실체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알고 싶다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라리, 2018:463-64). 그렇다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야기의 주인공 가운데 가장 고통을 느낀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지켜 보면서 그것을 극복할 길을 찾아 명상하고 고행한 싯달타 뿐이었을까? 오히려 세상의 악과 인간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싯달타처럼 고통을 피할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셨던 것이다.” 기독교는 하라리가 인정하는 고통의 실재성을 어떤 이야기보다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런데도 그는 “기독교는 허구다” “성경은 상상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4) 하라리의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

하라리는 오늘날 인류를 지배하는 거대한 이야기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꼽는다.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이기고 승리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핵심으로는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라리, 2017:386). 그런데, 이들 자유 인본주의의 강령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다고 하라리는 진단한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영혼, 자유의지, 자아 같은 것은 없으며 이것들은 유전자, 호르몬, 뉴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달과 그에 대한 사피엔스들의 의존이 커져가면서 이러한 위기를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호모 사피엔스 종족을 종말로 이끌 수 있다고 그는 우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라리는 명상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계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하라리가 시도하는 명상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싯달타가 제시한 명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라리는 싯달타의 명상법을 전수했다고 하는 위뻘사나 명상을 수행한다. 하라리는 명상가인 고엔카 (S.N. Goenka)에게서 위뻘사나 명상을 배워왔다. 고엔카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행복을 생물학적 감각의 쾌와 불쾌로 파악한다. 행복이란 실상 신체적 호르몬의 작용이며 신체적 감각이기에, 수행자는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갈망을 멈춤으로 참된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라리, 2015:540, 544, 558).² 다시 말하면 행복이나 불행의 실상이 인간의 감각이 촉발하는 느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각을 통제함으로써 이것을 뛰어넘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지능이나 인식이 아닌 정신에 도달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성이나 지식의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종교의 보편적 특성이자 불교적 수행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싯달타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인간관은 주관도 의식도 자아도 실상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라리의 다음 글은 그가 싯달타의 이러한 인간론에 근접한 생각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내디뎌야할 결정적인 걸음은 '자아'야말로 우리 정신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지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재작성하는 허구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 이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시대가 되어 이런 개인의 신화제조과정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

2) 하라리의 명상 스승인 고엔카가 가르친 위뻘사나 명상의 가르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윌리엄 하트, 『고엔카의 위뻘사나 명상』을 참조하라. 이 책에 따르면 위뻘사나(Vipassana)는 빠알리어로,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위뻘사나 명상의 목적은 석가모니가 실천하고 가르친 것의 핵심을 경험하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석가모니가 시행했다고 믿어지는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20)

다. 왜냐하면 그 과정의 일부야말로 우리 정신이 하던 일을 컴퓨터에 아웃소싱한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계정이나 자기 내면에서 하는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그 대신 몸과 마음의 실제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그러면 이성의 많은 개입 없이도 그리고 자신의 아무런 지시없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라리, 2018:454-456)

여기에서 하라리는 싯달타의 가르침을 따라 자아라는 것도 결국은 가상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하라리는 이와는 별개로 인간에게 있는 불멸의 의식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멸의 의식이야말로 인공지능의 신적 능력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가 볼 때 하라리는 여전히 자유주의적 인간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하라리가 진정으로 싯달타의 인간론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통일성을 보았을 것이며, 인간과 인공지능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0과 1로 명멸하면서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신호란 싯달타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인간의 감각의 찰라적 작동방식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라리는 이러한 동일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라리는 이러한 동일화가 현생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며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능의 찰라적인 작동방식은 하라리가 명상에서 발견한 인간의 감각의 작동방식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하라리의 선입견은 다름아닌 그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관점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라리는 명상속에서 자아의 평정심을 발견하며, 거기에서 멈추고 있다. 마치 뉴에이지 명상이 힌두교의 명상을 자아중심적인 서구버전으로 개조했듯이 하라리가 수행해 온 위빳사나 명상 역시도 불교 명상을 자아중심적인 서구버전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 같다. 비록 하라리 자신이 “서구의 뉴에이지 운동은 불교의 통찰을 처음 대했을 때 이를 자유주의적 용어로 바꿔버렸다”며 인도종교에 대한 서구인들의 자아중심적 해석을 비판하지만, 그도 여전히 서구인의 개인주의적, 자아중심적 한계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하라리, 2015:559). 그렇다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야말로 하라리가 그의 학문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서도 지적했던 하라리의 학문적 작업 속에 있는 내적 모순과 긴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힘을 얻은 하라리는 그의 학문적 작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본주의의 힘과 인간의 고통의 실재성을 변증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좀 더 심오한 주장을 동시에 슬로건으로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라리의 인간관의 관점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그의 인간관의 한계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인간관이 가진 한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의 한계는 공동체성의 본질적 부족함이다. 오늘날 서구 문명과 정치 경제체제가 위기에 처한 원인은 바로 개인주의의 자아중심성이 가져온 공동체의 파괴이다. 자아중심성은 이기심으로 나타나며 정치적 경제적 독점주의로 나타나며 다윈주의와 동일하게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점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인류의 다수가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아중심적 이기주의의 자연스러운 결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중심성의 바탕에는 개인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는 인간 본성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라리가 지적하듯이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라리, 2015, 327-328). 그러나 인본주의가 기독교의 태줄을 끊어버리고 독립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이라는 평등성의 의무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자유를 개인주의로 오독하게 되었고 결국 약육강식의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유 인본주의의 위기는 인공지능 과학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의 내적 모순과 한계로부터 태생적으로 오는 것이다.

유대교 학자인 마크 라이브(Mark E. Leib)도 이것을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하라리의 뿌리없는 인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하라리는 신도 인간의 기본권도 허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권에 대한 주장은 줄기 잘린 꽃처럼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의 주장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라이브는 경고한다(Leib, 2020:49).

5) 과학기술에 대한 하라리의 오해

하라리가 그의 저작에서 드러내는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는 과도하게 유물론적이며, 또한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언 큐란(Ian Curran)은 하라리의 과학기술 이해가 너무 환원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초월적인 신의 존재나 영속적인 인간의 영혼이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철 지난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라리는 반복적으로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라는 주문을” 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원주의적인 과학적 관점은 과학계의 일부 입장일 뿐이며 왜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을 믿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큐란은 지적한다(Curran, 2017:23-24).

안톤 니커크(Anton A. van Niekerk) 교수는 과학기술에 관한 하라리의 관점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한다. (van Niekerk, 2020:4). 실제로 하라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

로 인류는 죽음까지도 포함한 주요한 난제들을 극복해 왔으며 또한 극복해갈 것이라고 단순히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현실을 살펴보면, 죽음을 이기는 불멸에 대한 인류의 도전은 하라리의 주장과 달리 그리 성공적이지 않다. 미국의 과학역사가인 마이클 셔머(Michael Shermer)는 유전자치료나 인간냉동기술이나 인간의 뇌를 다운로드하는 것과 같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불멸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Shermer, 2018: Part II The Scientific Search for Immortality).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의 발전 역시도 범용지능(AGI)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이주선, 2021:132). 따라서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한 하라리의 낙관적 견해도 아직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하라리는 과학기술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남은 문제는 이처럼 성공적인 과학기술과 현생인류의 상관관계 뿐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술자본가들의 힘과 위협에 대한 하라리의 무관심

하라리의 미래전망은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이 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자본가들의 힘과 자본주의적 욕망의 위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운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라리 이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그의 분석의 약점이 되고 있다.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은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자본가들이 첨단과학기술들을 사들이고 그것들을 상업화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독점의 과정이 다름아닌 제4차 산업혁명이다. 기술력을 소유한 금융자본가들의 힘은 소위 플랫폼 선점을 통해서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제는 정치권력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페이스북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계정을 지워버린 사건은 이것의 상징적인 예이며, 기업이 진실을 판정하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선언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과 이들의 소유주인 자본가들을 제어할 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하라리는 오늘날 고통의 가장 큰 근원임이자 구조화된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들 기술금융자본가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하라리의 개인주의적 관점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7) 하라리에게는 미래의 사피엔스를 위한 대안이 없다.

3부작을 통해서 하라리는 그가 내다보는 미래가 가져다줄 인류의 위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인류는 이제 최소한 그런 적수 셋 - 핵전쟁, 기후변화, 기술적 파괴-을 앞에 두고 있다” (하라리, 2018:193).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경제나 군사의 장에서

인류를 퇴출시켜 무용한 존재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법은 인류가 전지구적 협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개별국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해결하기에 올바른 틀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하다...우리의 정치권 지구를 지구화해야 한다.” 부족단위의 국가들이 국가 단위의 생각을 극복하고 모든 인류가 닥쳐오는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라리가 세계정부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세계정부’를 수립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이다. 그보다는 한나라나 심지어 도시 단위의 정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전 지구차원의 문제와 이익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라리, 2018:195). 이렇게 보면 하라리는 인본주의가 주장해온 인류의 동질성과 인류애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다. 하라리의 글 가운데서는 이러한 성공사례도 제시되고 있다. 그 한 예가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이 인류를 파괴하는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라리의 이러한 요청은 그 자신의 다른 주장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신빙성과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첫째로, 하라리가 제안하는 인류차원의 협업은 그가 전망하는 또다른 원리와 부딪힌다. 그는 인류가 자유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류는 자유주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하라리, 2018:36). 하라리가 전망하는 것처럼 인류가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 지구적 공조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해안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섬나라들이 물 속으로 사라진다 해도, 선진국가들은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수많은 인류가 경제계에서 퇴출 되더라도 플랫폼 기업들과 초부자들은 그들의 경제적 손익을 우선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류애보다는 더욱 강력하게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의 그 산물인 개인주의는 결코 인류를 진정으로 결속시킬 수 없다.

하라리의 전지구적 협업 제안이 자기모순적인 것은 제국에 대한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그가 역사를 돌아볼 때 발견하는 것은 사피엔스의 대규모의 협업이 반드시 거대한 허구 이야기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이러한 허구 이야기를 통해서 결속되어 왔다고 그는 체계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차원의 협업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예상되는 거대한 이야기, 즉 체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글로벌 제국이다. 그는 다음과 미래의 제국을 전망하고 있다. “기원전 200년경 이래로 인간은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다. 미래에도 대부분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제국은 진정으로 세계적인 것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는 환상이 실현될 지도 모른다”(하라리, 2015, 295). 그리고 하라리는 제국이 파괴와 착취의 엔진이기 때문에 제국의 실행을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사람들을 무

자비하게 살해하고 억압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관찰하고 있다 (하라리, 2015: 275-277). 그런데, 하라리는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세계정부의 수립을 의심스러운 비전이라고 폄하하며 경계하고 있다. 제국의 체제를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하고 필연적인 발명품이라고 과감하게 옹호한 하라리가 막상 세계정부의 출현 앞에서 망설이는 것은 제국의 독재 시스템이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을 잘 아는 까닭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계정부 시스템의 출현을 “의심스럽고 비현실적인 비전”으로 폄하한다. 그의 제안은 모순적이다.

하라리가 미래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두 번째 해법은 명상을 통해 지능과 구별된 인간의 의식을 계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구별된 인간의 정신의 영역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하라리 자신이 명상을 통해 무의미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인류의 역사에 관한 책을 쓰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하라리, 2018:473). 그리고 그는 이러한 명상의 길을 인류의 미래를 위한 노력의 한가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우리는 명상을 통한 정신연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우리 자신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할만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하라리, 2018:480). 이것이 21세기를 위한 그의 여러 21가지 제안 가운데 마지막 제안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제안 역시도 그의 다른 주장들과의 모순으로 인해서 설득력을 잃는다. 그의 개인사의 키워드는 고통이었고 그가 역사를 보는 눈도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의 관심은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줄여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명상을 통해서 고통의 근원을 발견하고 제거해 나가는 정신적 수양의 노력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정확히 관찰하면서 고통의 근원이 많은 기대와 욕망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행복이란 단지 우리 몸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헛된 기대와 욕망을 줄여나감으로써 그 결과물인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제안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고통은 실상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결론이 아니다. 이것이 싯달타의 깨달음이며, 싯달타의 명상을 따라하려는 위빳사나 명상의 결론이다. 인류의 고통의 역사를 추적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현생 인류를 위협할 핵전쟁의 고통은 무엇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인간의 소외와 비인간화의 고통은 무엇인가? 오히려 하라리는 이러한 위협들이 실재하지 않는 허구임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 하라리는 싯달타의 궁극적 깨달음을 받아들여 인간의 자아 자체가 온갖 신호로 이뤄진 순간적이고 허구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의 찰라적인 신호체계가 다른 아닌 인간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그

것을 차별화하고 벗어나기 보다는 거기에서 삼라만상이 동일한 것임을 선언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사피엔스들이 미래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하라리가 제안하는 두 가지의 길은 자기모순 가운데 있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유발 하라리의 제안들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

이제 필자는 하라리의 제안들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극복해 보려고 한다.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것이 미래의 인류를 통합시킬 비역압적인 가치가 되며,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며 또한 인공지능을 인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라리의 미래전망에 응답하여 기독교적인 가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학자로 송용민 교수가 있다. 송교수는 하라리의 기독교 비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소유가 아닌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성의 회복, 보편적 인류애와 공동체성의 회복, 실천을 통한 개혁과 변혁의 공동의지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미래 교회가 실천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다.³ 필자는 송교수의 제안처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인류를 통합시키는 기독교의 인간관

첫째로, 저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하라리가 첫째로 제시한 대안인 전지구적인 협업의 요청에 관해 보완점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하라리는 인류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구적인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전지구적인 제국의 출현을 예측한다. 그는 전지구적인 제국이 호모 사피엔스들의 협업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가 인류에게 미칠 고통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제국의 논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세계관이야말로 사피엔스를 통합시킬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싶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평등하다는 인간관이다. 하라리 자신이 인정했듯이 인본주의의 인간평등, 인간존엄의 사상은 그 기원과 바탕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검토한다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는 없다. 그가 서 있고 다수의 현생인류가 서 있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모든 중요한

3) 송용민, “소유와 존재의 삶의 방식에서 바라본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이정배, 박태식 외 5명 (2020),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인가?, 87-128. 115-128.

4) 송용민 교수도 하라리가 인간의 상호인격성이 지닌 본성적 가치들을 너무 쉽게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송용민, “소유와 존재의 삶의 방식에서 바라본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이정배, 박태식 외 5명 (2020),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인가?, 87-128. 123.

가치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할 때 인본주의는 미래의 도전들을 함께 맞이할 분명한 근거를 얻게될 것이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또한 하라리의 개인주의적 인간관이 지닌 한계를 넘어선다.⁴ 하라리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개인주의는 그가 불교적 명상에 귀의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는 철저한 개인주의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관의 치명적인 오류이다. 하라리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본주의의 오류이다.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집단으로 본다.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동물적 본능으로 파악한다. 인본주의의 실패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파편적인 이해와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며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인 사회적 삼위일체론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인격적 공동체이시다. 이것은 각 위격이 견고하고 구별된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 위격은 다른 위격을 섬기고 사랑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⁵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 역시도 인격적이며 공동체적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만의 개성과 자유를 부여받았으며,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 이렇게 보면 인본주의의 인간관은 인간의 이러한 심오한 인간관을 분해시켜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동물적 인간관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인간관은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의 오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자유란 인본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구속받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만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의 극히 일부분이다. 참된 자유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조건이며 능력이다. 인간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인격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결코 자유를 사랑과 공동체와 떼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인본주의는 그러나 벗어날 자유,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을 배타적으로 섬길 자유에만 주목했다. 이것이 에텐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오해였고, 이러한 오해를 그대로 철학화한 것이 근대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이었다. 니체가 자유에 대한 이러한 오해의 극단이었다면, 그것을 비교적 온건하게 주장한 사상가들이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이었고 경제사상가 아담 스미스였다. 그리고 그 잘못된 자유론을 따라가는 호모 사피엔스들은 인간소외와 인간착취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인간을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도 인공지능의 도전 앞에 있는 현생인류가 인

5) 사회적 삼위일체론(Social Trinitarianism)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으로, 삼위일체 안의 세 위격의 개별성과 인격성을 강조하면서, 일체성을 세 위격의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로 독일의 현대신학자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이 있다. 그의 저서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참고하라.

간의 고유한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라리는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의 본질을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찾는다. 그러나 하라리가 시도하는 지능과 정신의 구분은 모호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하라리가 제시하는 것처럼 정신의 자기발견이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체의 물질적 대사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지를 주장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로 이해한다.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영적 본질은 너무도 쉽게 인공지능의 전기적 신호나 지능적 탁월성과 분명히 구별되며 호모 사피엔스의 본질을 다른 동물들과도 구별할 근거가 된다.

2) 인류를 통합시키는 기독교의 윤리관

기독교의 윤리관 또한 이러한 공동체적 인간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기독교의 윤리 또한 하라리가 주목하고 현생인류가 미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관은 인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인 개인주의의 한계를 넘어선다. 마르크스주의나 아시아의 권위주의적 문화권의 윤리인 집단주의의 끔찍한 한계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발성과 인격적 존중을 옹호한다. 거기에는 강압성과 폭력성의 자리는 없다. 또한 기독교 윤리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르친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으며, 악을 미워하신다. 하라리 이상으로 합리주의자였으며 과학의 철학적 기초를 정립한 임마누엘 칸트가 윤리의 참된 가능성을 고뇌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윤리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된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후의 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칸트, 2019). 하라리가 강조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이다.

3) 인류의 본성적 결함을 해결하는 기독교의 구원관

그리고 하라리와 현생인류가 꼭 주목해야 할 인간에 관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함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인류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하라리가 인간이 초래하는 고통의 역사를 파헤치면서도 인간의 본성적이고 보편적인 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놀랍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악과 고통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결함이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악함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간과한다면 문제의 근원을 놓치는 것이다. 현생인류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와 악에 대해

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세계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라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악과 고통을 일종의 무지로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는 죄와 악 역시도 허구라고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자신의 삶이 그의 사진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처럼 참으로 선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도 우리는 무지함으로 타인과 세상을 괴롭힐 수 있다. 필자와 같은 학자가 타인에게 초래하는 고통도 있다. 만일 학자의 책에 담긴 주장과 처방이 잘못되었다면? 만일 하라리의 진단과 제안이 필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면? 이러한 학문적 오류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손해와 심지어 해악을 생각해 본다면 “이 책에서 제시한 모든 시나리오의 예언이라기보다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이런 가능성들 가운데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자기 면책표현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라리, 2017:542). 기독교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한계로 인해 죄를 짓는다고 가르친다. 고통들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인간들의 죄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타인이 저지른 죄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하라리가 주목하는 이 모든 고통의 참된 원인은 인간의 죄다.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는 만큼 사랑을 떠난 인간 실존과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강조한다. 싯달타가 본 고통에 찬 세상의 모습은 정확했던 것이다. 그러나 싯달타나 하라리와 다르게 기독교는 그 원인인 죄를 직시한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에 넘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어떤 대안을 주는가? 기독교는 이 많은 고통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기독교는 고통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고통의 원인인 인간의 죄를 제거함으로써 인간과 만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이것을 해결한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2천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마을에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가족을 섬겼으며 30세 경부터 3년 정도의 기간동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과 죄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가르치시다가 종교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체포되었고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극형으로 죽음을 당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며 선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셨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재판을 받고 무고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속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고통을 제거해 나가게 된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인도하

심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죄와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처방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라리가 깊이 공감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분은 인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경험하시기 위한 삶을 사셨다. 싹달타가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목격자라면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온 몸으로 체험한 분이셨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다른 사생아로 인식되어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버림을 받을 뻔 하셨다. 그는 길 옆에 있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곧이어 그를 죽이려는 살해의 위협을 피해 예수님은 이방의 땅 이집트로 부모를 따라 도망하셨다. 그가 다시 귀국했을 때에는 변방의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면서 목수로 노동일을 하셨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기 위해 40일 밤낮을 굶으셨다. 그는 사탄의 강력한 시험과 유혹을 목숨을 걸고 견디어 내셨다. 그는 결혼의 행복을 포기하시고 독신으로 사셨다. 그는 집 한 칸이 없으셨다. 그는 순회 전도자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셨다.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았고 산헤드린 국회에서는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가까운 제자인 유다의 배신으로 밀고를 당하고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렸다. 그는 정식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간계로 억울하게 로마의 반역자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로마군의 채찍을 맞았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형장에서 결국 사형을 당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받았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무게는 얼마였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그 결과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독특한 관점을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가 “나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보다 사랑의 문제를 우위에 놓는다. 따라서 기독교의 강조점은 한 개인의 고통의 해결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타인과 세계의 고통을 짊어지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 하지만, 아기를 낳은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비유하셨다. 한 생명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특성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제자들은 타인을 위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사형을 당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고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려 처형되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자신들의 고통의 제거가 아니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4) 인공지능의 매스터 알고리즘이 될 기독교의 가르침

하라리는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호모 사피엔스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다.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언제 도래할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범용지능(AGI)을 갖는 순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미래의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소위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에 어떠한 관점, 어떠한 행동의 원칙을 코딩해야 할 것인가? 인간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원칙이면 충분할 것인가? 그렇다면 악한 인간의 악한 도구로써 가공할만한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아니면 개인주의적 인본주의 원칙일까?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자율 인공지능은 생각만 해도 무섭다. 호모 사피엔스가 인공지능에게 판단과 행동의 기본으로 코딩해야 할 원칙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체는 다른 개체들을 돌보는 존재이다.” “자유는 돌봄과 섬김의 조건이자 수단이다.” “다른 개체에게 나의 판단이나 결정을 강요하지 말라” “인간을 만든 창조주를 경외하라” 이러한 윤리적 원칙이 호모 사피엔스와 인공지능 모두에게 필요한 미래 공존의 윤리가 아니겠는가?

III. 결론

이 글에서 우리는 유발 하라리의 역사학적 작업에 대한 비평을 시도해 왔다. 현생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보려는 그의 학문적 작업은 매우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문의 분야를 다루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하라리의 작업은 우리에게 현생인류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이 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중요하고도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뛰어난 학문적 공헌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작업의 곳곳에서 지나친 단순화와 지나친 과학적 유물론의 적용으로 인한 인식의 한계들을 또한 볼 수 있었다. 그 하나가 종교에 대한 그의 피상적 이해이며, 또한 기독교에 대한 그의 피상적 이해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의 학문적 작업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보게 되었다. 아쉽게도 이러한 모순들은 그의 학문적 작업의 완성도와 신뢰도에 의문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모순들의 배후에 있는 그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볼 수 있었다. 하라리가 가진 관점들의 긴장은 그의 학문 전체에 논리적, 현실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끝으로 우리는 기독교가 현생인류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필자

의 주장은 기독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흔들리는 지금 인류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하라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인간관과 윤리관과 세계관이 왜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도이기도 하다. 고통의 실재성을 고민해온 하라리에게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고통의 실재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고통의 제거를 찾는 하라리의 구도적 삶의 여정에 기독교는 고통의 근원인 죄를 제시하며 또한 그것의 진정한 극복의 길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균진 역. (2017).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Moltmann, J. (1993). *Trinity and the Kingdom*. 서울: 기독교서회.
- [Kim, K. J. (2017). *Trinity and the Kingdom*. Seoul: CLSK. Trans. Moltmann, J. (1993) *Trinity and the Kingdom*. Minneapolis: Fortress Press]
- 김명주 역 (2017). **호모데우스**, Harari, Y. N. (2015). *Homo Deus - A Brief History of Tomorrow*. 서울: 김영사.
- [Kim, M. J. (2017).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Seoul: Gimm Young Publishers. Trans. Harari, Y. N. (2015).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New York: Harper Perennial]
- 담마 코리아 역 (2017). **고엔카의 위빳사나 명상**, Hart, W. (1987). *The Art of Living: Vipassana Meditation*. 서울: 김영사.
- [Damma Korea (2017). *The Art of Living: Vipassana Meditation*. Seoul: Gimm Young Publishers. Trans. Hart, W.(1987). *The Art of Living: Vipassana Meditation*. San Francisco: Harper One]
- 백종현 역 (2019). **실천이성비판**, Kant, I. (2018).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서울: 아카넷.
- [Baik, J. H. (2019).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Seoul: Akanet. Trans. Kant, I. (2018).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Sydney: Wentworth Press]
- 왕대일 (2018).『사피엔스』『호모데우스』서평. *Canon & Culture* 12(1), 235-255.
- [Wang, Tai Il. *Sapiens, Homo deus book review*. *Canon & Culture* 12(1), 235-255.]
- 이정배, 박태식 외 5명 (2020).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인가?** 서울: 자유문고
- [Lee, J. B, Park, T. S. et al. (2020). *Homo Deus: Is This the Future of Homo Sapiens?*. Seoul: Ja Yoo Books.]
- 이주선 (2021). **AI 임팩트**. 서울: 굿인포메이션.
- [Lee, Joo-Sun (2021). *AI Impact*. Seoul: Good Information.]
- 전병근 역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Harari, Y. N. (2018).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서울: 김영사.
- [Jun, B. K. (2018).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Seoul: Gimm Young Publishers. Trans. Harari, Y. N. (2018).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 조현욱 역 (2015). **사피엔스**, Harari, Y. N. (2011). *Sapiens*. 서울: 김영사.
- [Cho, H. W. (2015). *Sapiens-A Brief History of Humankind*. Seoul: Gimm Young Publishers. Trans. Harari, Y. N. (2011). *Sapiens-A Brief History of Humankind*. New York: Harper Perennial]

- Curran, Ian (2017). Becoming godlike? *Christian Century*. Nov. 2017, 23-25.
- du Toit, Cornel W.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question of being. *Hervormde Teologiese Studies* (Pretoria). 75:1-10.
- Harari, Yuval Noah (2020). The World After Corona 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
- Leib, Mark E. (2020). A Nihilist Testament: Yuval Harari, celebrated adversary of the sacred and good. *Commentary*. 149(7), 45-49.
- Mikoski, Gordon S. (2017). Reimagining our future in light of changing views of the evolutionary past. *Theology Today*. 73(4), 388-395.
- Shermer, Michael (2018). *Heavens on Earth: The Scientific Search for the Afterlife, Immortality and Utopia*. Henry Holt and Co. (Amazon kindle edition).
- Seibold, Loren (2016).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by Yuval Noah Harari. *The Christian Century*. March 2016, 39.
- van Niekerk, Anton A. (2020). Building the future in the 21st century: In conversation with Yuval Noah Harari. *Hervormde Teologiese Studies* (Pretoria). 76:1-10.

유발 하라리에게 답하다

- 유발 하라리의 인류사 연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Answering Yuval Harari: A Christian Response to Yuval Harari's Writings on the History of Homo Sapiens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논문초록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인류의 역사를 추적하는 3부작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들였다.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성공비결로 유연한 언어능력, 특히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규모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들었다. 화폐질서, 제국의 질서, 종교와 같이 현생인류가 고안한 거대한 이야기들은 현생인류의 거대한 집단을 통일시켜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류의 협업을 끌어내는 이야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라리의 학자적 탁월함은 장구한 인류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단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현생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은 그의 지적 모험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류사 전체를 다루는 하라리의 주장들은 지나친 단순화의 아쉬움이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론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오해와 오류들을 안고 있어 학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의 오류 가운데 중대한 하나가 기독교, 더 나아가 종교에 대한 오류이다. 그에게 있어서 종교란 그가 키워드로 삼는 거대한 이야기, 즉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분석에서 기독교는 유럽의 역사를 한 때 지배한 거대한 허구 이야기로, 많은 문제와 모순으로 가득한 지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논문은 기독교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하라리의 역사관을 비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하라리의 학문적 공헌과 함께 학문적 약점을 밝힌다. 또한 이 논문은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하라리의 오해와 편견들을 지적하며 하라리의 역사이해가 가진 내적 모순들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서 이 논문은 하라리가 전망하는 종교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비평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전망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시도한다.

주제어: 유발 하라리, 기독교, 종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미래